

5월의 기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전 세계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를 통해 나타난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4.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5.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6. 우크라이나에 전쟁 종식과 평화가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혼들에게 참 자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어느 마을에 가뭄이 들어 주민들이 마실 물도 없어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는데, 마을 교회의 목사님이 하루를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인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우리 마을에도 비를 주실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중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고 기도가 빠져터 거리고 고생스러웠으나, 오후가 될수록 날씨가 흐려지더니 나중에 기도를 마치고 있는 때에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니까 모두 다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교회 안에 있는데 비가 오므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조그마한 소녀가 낡은 우산을 가지고 뛰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린 소년 한 사람만 비가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믿고, 목사님이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깐 우산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네가 우산을 준비했느냐?”라고 묻자 “목사님이 오후에는 비가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안 오는 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게 만드시므로 우산을 가져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비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비가 오면 옷이 젖으니까 당연히 우산을 가지고 와야죠.”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장 24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예수님이 구하시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기만 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으십시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pril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2001년 해외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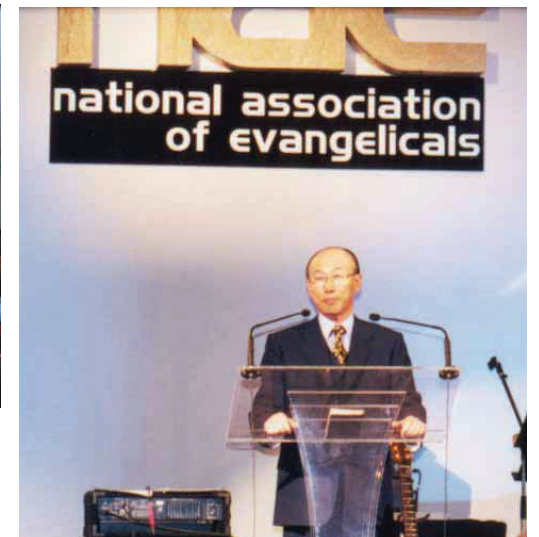
미국 달라스



▲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중남부지방회 연합 달라스 성회



▲ 미국복음주의협의회(NAE) 달라스 초청 21세기 성령운동과 기도운동 특강



▲ 미국복음주의협의회(NAE) 성회에서 말씀 전하는 조용기목사



미국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달라스는 말을 타고 달리는 카우보이를 연상케 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전통이 있는 도시이며 광활한 대지 위에 펼쳐진 끝 없는 갈대밭은 달라스만의 자랑이다. 달라스는 온화한 날씨를 갖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 의리가 있는 도시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한 이곳에서 미국복음주의권 지도자들은 조용기 목사를 초청하여 2001년 성회를 개최했다. NAE에서는 총 두 번 그리고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남부지방회 주최로 열린 달라스 연합성회에서는 1번의 설교와 조찬 기도회를 인도했다. 2001년 미국 달라스성회는 꿈과 희망 그리고 기쁨을 남긴 성회로 기록되었다.

◎ ... 미국복음주의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는 미국내 복음주의권의 51개 교단이 모인 연합체로, 세속

문화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던 이후 새로운 부흥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훈련하는 단체로서 NAE는 2001년 3월 6일 DCEM 총재 조용기목사를 달라스로 초청해 21세기 성령운동과 기도운동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조용기 목사는, 영적인 능력은 기도에서 출발한다며 ‘성막 기도’라는 말을 사용했고 매일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 ...총재 조용기목사는 달라스 성회에 앞서 순복음시카고교회를 방문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주제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

다.
 ◎... (종합) 2001년 미국 달라스성회는 ‘꿈과 희망 그리고 기쁨’이 큰 주제였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 사람들에게는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자리였다. 미국 지도자들은 총재목사가 (당시) 44년 목회하면서 겪었던 꿈과 좌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공감했으며 때로는 눈물로 격려하기도 했다. 특히 총재목사는 한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민사회에서 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자신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베풀며 봉사하는 삶을 살 때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새로운 피조물’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장 17절)

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러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고 버림을 당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처음 아담이 가지고 온 죄와 죽음을 다 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고 다시 산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누리게 된 가장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된 사람을 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심신이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축복과 형통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과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싸늘하고 양상한 나뭇가지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요사이 봄이 밝아오니 천지가 봄기운으로 가득하고 진달래도 개나리도 활짝 피었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이 죽은 것만 같았는데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니 온 천지가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사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1.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왕 같은 존재로서 3차원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았으나 아담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반역하자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고 오늘날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것입니다. 아담은 원래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고통당하고 결국은 죽음과 병을 얻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는 절대 절망뿐인 것입니다.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절대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절대 절망에 빠져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

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3.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강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 임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 동안 생활할 때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나는 치료를 받고 건강하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었다.” 라고 말하십시오. 말이라는 것은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컨트롤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생각, 꿈, 믿음, 말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양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닫고 알게 되어 그렇게 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변화된 축복받은 모습을 마음속에 사진으로 찍어서 걸어놓고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믿고 “나는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

일본 삿포로 신학교 개교식

일본 선교의 꿈 이룰 사역자 양성



순복음동경교회 삿포로신학교 개교식 및 입학예배가 5일 일본 삿포로 현지와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 그리고 여의도순복음신안산교회에서 화상회의플랫폼 줌(ZOOM)을 통해 동시 진행됐다.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삿포로신학교 이사장으로써 “삿포로신학교 개교는 조용기 목사의 꿈이었다. 동시에 이영훈 목사가 계획하는 세계 선교의 한 전략이고 일본 선교의 동력이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개교를 선언한다”고 선포했고, 참석한 순복음동경교회 성도들과 순복음신학교 관계자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역자들과 여의도순복음신안산교회 교역자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다.

삿포로신학교장 이영훈 목사는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삿포로신학교를 개교하면서 일본 일천만구령의 꿈을 마음에 품고 ‘성령, 권능, 증인’ 세 단어를

깊이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된다”면서 “조용기 목사가 일천만 구령을 위해서 일본 전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 시가끼 목사를 필두로 전 성도가 한마음으로 일천만구령의 역사를 이룰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 후 이영훈 목사는 박다윗, 박종필, 신승관, 야마나가 타이스케, 전부호, 최미정, 한경연 총 7명의 입학생을 호명하고 입학허가 선언을 했다.

이어 윤소영 홋카이도선교회장은 3년 반에 걸쳐 이뤄진 개교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히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삿포로신학교 설립을 축복하며 친필로 남긴 글도 소개했다. 사진으로 공개된 서신 속에는 삿포로신학교

설립 축복과 함께 조용기 목사의 오랜 해외 선교 동역자인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담겨있었다. 파킨슨병으로 인해 손이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필로 직접 써 주신 축복의 메시지는 지난해 하나님 품으로 가신 조용기 목사님을 사랑하는 참석자들에게 반가움과 그리움 섞인 탄성을 자아냈다.

명예고문 최용우 목사는 “이 학교를 통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 에스라와 같은 신학자, 베드로와 같은 설교자,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배출돼 일본 일천만구령 사역이 앞당겨질 것을 확신한다”고 축사했다.

삿포로신학교는 일본 국내의 선교를 위한 사역자 양성을 위해 세워진 학교로서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과 일본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